

영암군-CY그룹, 농축산물 판매 ‘맞손’

안정적 생산·유통 활성화 등 공동이익 창출 업무협약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농가소득 증대 기여 기대

영암군은 최근 CY그룹과 영암지역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Y그룹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그룹 유통매장에 농·축·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벤더업체로서 불가리아, 홍콩, 대만, 일본 등 국외에서도 핵심 유통망을 구축한 유통 전문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와 조정기 의장, 유나중 부의장, 그리고 CY그룹 최현열 명예회장과 유통부문 김태화 사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교육·홍보 강화 ▲지역 농·축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동브랜드 활용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상호 협력 ▲영암지역 농·축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 협의 등을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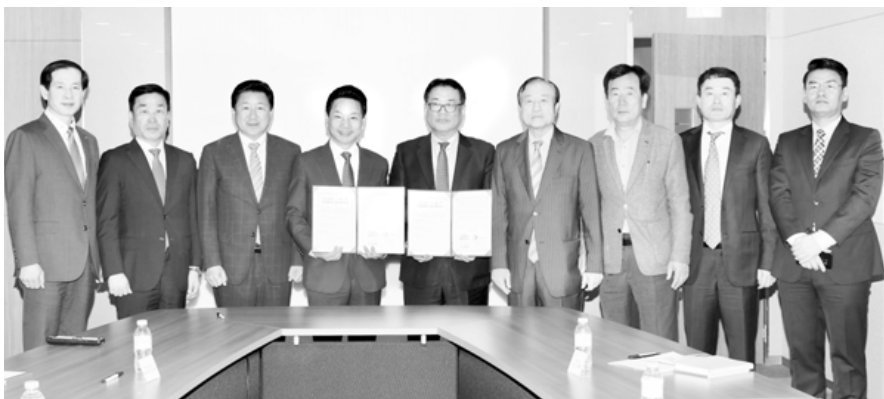
특히 영암군은 1972년 창립된 유통전문기업인 CY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필요 시 관련 기관의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최대 유통 판매망을 확보한 CY그룹과의 우수 농축산물 유통을 위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농업 강군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영암군은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지역 농산물을 입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대통령상에 빛나는 매력한 우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총 16회)에 선정된 달마지쌀골드 및 무화과, 대봉감, 멜론, 영암배 등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선보일 계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위한 영암 방문을 시작으로 22일 롯데슈퍼 입점관련 실무협의진 서울방문을 통해 영암군과 CY그룹은 농축산물의 유통 판매망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영암군은 최근 CY그룹과 영암지역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암군 제공

다양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전국 최대이자 최고 유통기업인 CY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해 영암지

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이봉원기자



바다식목일 기념비 제막 지난 10일 완도항 해변공원에서 열린 '제7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영수 해양수산부 차관, 신우철 완도군수, 신현석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일 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장 등 내빈들이 바다식목일 기념비를 제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어업인과 수산관련단체 회원,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바다 속 황폐화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바다 숲 가꾸기에 공감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전남도 제공

목포한국병원, 호남 첫 비만당뇨수술센터 개소

다학제 치료·통합진료 시스템 구축...환자 안전 최우선

목포한국병원은 최근 호남 최초로 비만, 대사질환 치료를 위해 '비만·당뇨수술센터' 문을 새롭게 열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센터장인 이형석 원장(외과)을 비롯해 외과(이성배 과장), 소화기내과(정재학, 강승대 과장), 콩팥·내분비내과(안치용, 최준석 과장), 심장혈관내과(김민관, 이혁규 과장), 호흡기 내과(장진선 과장), 이비인후과(심주환 과장), 정신건강의학과(정진대 과장), 마취통증의학과(김형석 과장), 영상의학과(황강익 실장, 김용태 과장),

영양과(임수지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비만·당뇨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수술을 통해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다학제 치료 협진 및 통합진료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병,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키기에 근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간 비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시도됐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비만 교정 수단은 위 소매절제술과 위 우회로

술이다.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체중 감소 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 등 대사증후군이 동시에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 '비만 대사 수술'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치료의 표준치료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비만대사수술은 지난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수술비 부담이 대폭 감소됐다. 지난해 기준 비만대사수술을 받으려면 1천만원의 입원·수술비가 발생했지만 올해부터 200만원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형석 센터장(원장)은 “최근 국내

비만 관련 진료비가 3년 동안 1조5천억이 증가할 정도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남은 1인당 비만 관련 진료비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비만율은 강원에 이어 2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비만이라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의 건강 수준은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앞으로 목포한국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는 이러한 현실에 책임감을 갖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합병증 없이 수술 및 퇴원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무안군, 중만생종 양파도 산지폐기

20.6ha 3억8천600만원 지원...가격·수급안정 모색

무안군이 조생양파 68.7ha를 지난해에 폐기한데 이어 중만생종 양파 20.6ha도 산지폐기를 하고 있다.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양파 산지폐기는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농협, 농가 간의 불가피한 조치다.

무안군은 지난 조생양파 폐기 시 농가 어려움을 감안 총 12억3천300만원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 20%인 2억4천7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조생종 양파는 3.3㎡당 7-8천원에 포전 거래돼 한창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중만생종 양파 산지폐기는 산지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하고 채소가격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20.6ha를 폐기하며 3.3㎡당 6천174원으로 총 3억8천6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전국 최대 최고 주산지인 무안군의 양파 재배면적은 2천760ha로(전국 2만1천756ha의 12.7%) 평년 3천259ha와 지난해 3천177ha보다 각각 417ha, 499ha 줄었지만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근래 들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무안=전영태기자

진도군, 지역안전지수 개선 ‘쟁걸음’

화재·교통사고 등 예방 노력

진도군이 최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해 나타낸 수치다.

진도군은 화재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진도 119안전센터가 주관,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소화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살 분야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고독사 방지, 농약 보관함 보급,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분야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확대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정기 접종 등 감염병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또 자연재해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함께 소화천 정비, 예방시설 정비, 예방대책 등 추진하고 범죄 분야로는 진도경찰서 주관으로 5대 범죄(강도, 살인 등)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안전지수 5등급으로 가장 낮은 교통사고 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진도경찰서와 협업체를 구축한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홍보,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진도군의 지역안전지수는 비교적 취약한 수치로 나타났다”며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개선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임야 급매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